

데스크 시각

대문 좀 열어 주세요



윤 영 기 문화미디어부장

설날이었던 지난 2월8일 새벽 5시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비상 호출을 받았다. “하남산단 5번 도로에서 수도관이 파열됐다”는 것이다. ‘다녀오겠다’는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서서 가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안타까워했다.

직원 15명을 포함한 협력업체 재산업 유재규 사장 등 모두 25명이 현장에 모였다. 식수난을 겪을 시민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 굴착기 파손을 피해 파열된 상수도관이 드러나자 윤 사장은 웅담이로 변한 그곳으로 출현하 들어갔다. 이 괴력의 사나이는 귀신같이 물새는 곳을 틀어막았다. 물이 뿜어져 나오는 구멍에 나무못을 탁 박아 넣으니 차츰던 물줄기가 잠잠해졌다. 도로

에 넘친 물이 얼어붙을 정도의 강추위였지만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해 낸 일이었다.

수도관을 지키는 사람들

응급조치를 거쳐 현장이 수습되기까지는 무려 18시간이나 걸렸다. 그동안 상수도본부 직원들과 현장 근로자들은 추위에 떨던 땀였다. 살뜰한 윤 사장은 점심때 자신의 집에서 떡국을 끓여왔다. 상수도 본부의 한 직원은 “평생 먹어 본 떡국 가운데 가장 맛있었다”고 했다.

미치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다음날엔 백운동 동아병원 인근 건널목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물바다나 다름없는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들과 공무원들은 파열된 상수도관을 수습하느라 종일 추위에 떨었다.

비상사태가 아니어도 상수도시설관리소 공무원들은 24시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퇴근 후 ‘따뜻한 저녁’은 엄감생이다. 직원 2명이 매일 번갈아 불침번을 선다. 사고가 터지면 한 명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또 한 명은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뛰어간다. 이들이 늘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이유는 한번 사고가 터지면 다수 시민

들이 고통받기 때문이다. 겪어 본 이는 알겠지만 식수가 끊기면 보일러에서 따뜻한 물을 뽑아 쓸 수도 없으니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한다. 게다가 화장실도 못 쓰는 등 집이 마비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상수도 관련 공무원들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는다. 늘 그렇듯 불안의 주범은 노후관(老朽管)이다. 전체 광주시 상수도관 중 20년 이상 된 게 무려 300km 길이에 달한다. 단계적으로 새 관으로 교체하고 있지만 지하에 묻힌 노후관을 시한폭탄이다. 이들이 오늘도 몸으로 ‘위태로운’ 관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물 절약은 세금 아끼는 일

이들은 종종 박한 세태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한다. 옥내 누수 무료 탐사서비스 과정에서 부득이 가정을 방문해 물이 새는 곳을 점검해야 하는데 ‘수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일쑤다. 서비스를 신청한 집을 방문해도 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상수도본부의 한 직원은 “고맙다는 말 듣는 것보다 방문했을 때 대문 잘 열어 주는 분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고 말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이러한 서비스는 광주시에서 맡을 일이 아니다. 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사설업체를 부르면 출장비 포함 누수 탐사 비용만도 평균 20여만 원이라고 한다. 굳이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 부담을 덜어 주려는 뜻이 담겨 있다. 서비스는 여기까지이다. 업체를 불러 물 새는 곳을 고치고 나면 그동안 누수로 부과된 수도요금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상수도본부 직원들에게 올해는 ‘밥을 먹지 않아도 든든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올 겨울 비가 많이 온 덕분에 광주시민의 젖줄인 화순 동복호 저수율이 80%대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봄 가뭄으로 애를 태우지 않아도 되니 하늘의 음덕(?)을 보게 된 셈이다.

읍지에서 일하는 상수도 관련 공무원들의 바람은 소박하기 그지없다. 물 절약이다. 공유자원을 보존하고 소중한 세금을 아끼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은 평소에 아끼기도, 혹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을 만난다면 ‘수고한다’ 따뜻한 한마디 건넬면 어떨까.

은펜클럽

고산 윤선도는 정치투사였다



강 대 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행정학박사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고산에 대한 수많은 기록 중 호의적인 평가는 많지 않다. 그것은 고산의 일부 행적과 공격적인 상소들이 벌미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무려 37년에 달하는 유배와 은둔생활을 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고 볼 때 그만큼 정적들의 시기와 모함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절대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할 말 다하는 꿋꿋한 그를 어떻게든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고산은 광해군 집권초기 갖 서론의 성균관 유생의 신분으로 병진소(丙辰疏)를 올려 중앙정계에 입문한다. 상소내용은 감히 엄두를 못 낼만큼 매섭고 직설적이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이이첨의 전횡을 고발하고 이이첨과 그 일당을 내쳐야한다며 과거제도의 폐해 등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이었다. 고산은 이 한 장의 상소로 정계에 회오리를 일으키며 일약 유명인사가 되지만 그 대가는 너무 혹독했다. 이이첨 일당의 반격으로 무려 7년 동안의 유배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인조반정으로 이이첨 일당이 축출되자 복권되어 42세에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의 세자사부를 지내기도 했지만 정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중도하차하

게 된다. 그의 승진을 시기하는 중신들의 모함으로 사헌부지평에서 성산현감으로 좌천된 뒤 좌절을 거듭하다 해남으로 낙향하여 은둔생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66세 때에 의외로 제자였던 봉림대군이 효종이 되자 그의 부름으로 17년간의 은둔생활을 접고 화려하게 정치무대로 복귀한다. 그러나 반대세력은 그때도 여전히 효종의 엄호 속에서도 불과 4년 만에 정계를 떠나 낙향하게 된다.

고산의 정치생활은 칠십이 넘어서도 계속된다. 또다시 효종의 부름을 받아 동부승지까지 올랐으나 그의 운명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고산은 정적들의 질시에 못 이겨 1년에 무려 13번의 사직상소를 올리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해남에 있는 녹유당 사당에는 효종이 정계를 떠나는 고산을 위해 하사했던 집으로 원래 화성에 있었으나 고산이 해남으로 옮겨 지은 것이다.

그리고 1년 뒤 든든한 후원자였던 효종이 죽자 송시열(宋時烈)이 이끄는 서인파의 예송논쟁에서 패해 또 다시 형도 삼수(三水)로 7년간의 유배를 가게 된 것이다. 결국 고산은 80이 넘어서야 고난의 정치무대를 떠나 보길도에서 85세를 일기

로 잠이 든다.

효종실록에 나오는 그의 평에 “이 사람은 미조지계(媯縷之計-교묘하게 아첨하는 계책)을 알지 못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직설적인 말로 홀로 싸우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보면 고산의 성품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고산의 삶을 살펴보면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이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난 고산의 신분으로 시대와 타협하며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굽힘이 없이 불의를 고발하고 정쟁의 중심에 선 그를 보면 진정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정치투사였음을 알 수 있다.

요즘 ‘중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배신의 정치인이라고 찍혀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어느 정치인에 얽힌 촌극을 보면서 만약 고산이 이처럼 무원칙이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떤 내용의 상소를 올릴까 궁금하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Industry 4.0)



문 경 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이 모여들기 시작해 현대 도시가 탄생했으며, 저렴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삶의 질도 향상됐다.

제3차 산업혁명은 두뇌의 힘을 기계로 대체했다. 이것은 이른바 컴퓨터의 민주화이며, 그 키워드는 ‘데스크톱’과 ‘개인’이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유동시키는 수단의 민주화에도 기여했다. 1995년에 나온 웹(Web)의 개념이 그것을 실현했다. 옛날에는 인쇄공장과 유통·전달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기업뿐이었지만, 이제 브라우저에서 버는 하나로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기계’와 ‘디지털’이다. 3D프린터와 클라우드 매뉴팩처링이 그것을 상징한다.

또 가상물리시스템(CPS)를 활용한 ‘진화된 공장’ 즉, ‘똑똑한 공장(Smart Factory)’의 실현도 가능해졌다. 이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인터넷인 IoT(Internet of Things)와 IoS(Internet of Services)을 그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기술은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된 IT(정보기술)다. 제3차 산업혁명에서도 IT가 활용됐지만 그 대상은 주로 생산공정 자동화에 불과했는데, 제4차 산

업혁명에서는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똑똑한 공장에서 전개될 응용으로 생각되는 것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기기(器械)들끼리 자율적으로 협조작동하는 ‘M2M(Machine to Machine)’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은 빅데이터의 활용, 생산계통 이외의 개발·판매·ERP(Enterprise Resource Management)·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SCM(Supply Chain Management)과 같은 업무시스템의 제휴 등이 있다.

“똑똑한 공장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앞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도 무궁무진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문제다. 예를 들면 공장의 조업도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을 실시간(리얼타임)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총 에너지소비량을 대폭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유연성도 대폭 증가한다. 예를 들어 IT 활용에 의해서 기계·설비를 원격지에서 조작할 수 있게 되면 안전, 쾌적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근 자체가 불필요해질 만큼 자유도, 쾌적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결국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열쇠를 쥔 것은 도

전 정신을 가진 인재의 창출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 다른 다양한 지식을 결합하면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 다른 것을 융합시키면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나갈 창조적인 인재가 모든 산업·학문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교육단계에서 미래사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재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질·능력을 키워려면 초·중등 교육에서 사회와 세계의 변화에 대응한 ‘사회로 열린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IT와 외부인재·민간 노하우를 적극적·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창조적으로 문제를 발견·해결하고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사고력·판단력, 감성과 리더십, 도전하는 힘 등을 효과적으로 키우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곧 다가올 인구절벽이라는 성장 제약을 타파하고 우리 지역 인재층의 다양성을 높이고 경제사회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책도 준비해야 할 때다.

社 說

호남 적통 과연 어느 당이 이어갈 것인가

4·13 총선에서 뜨거운 야당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과 더불어 민주당(더민주)의 사활은 단연 호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호남이 제1야당의 본산인 데다, 출향민이 많은 수도권 표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새정치를 표방하며 국민의당을 창당하자 높은 지지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패권에다 문재인 전 대표의 프뎀까지근한 리더십이 보여준 염증이 국민의당을 호남정치의 새 대안으로 여긴 심리로 작용했다.

막대한 골목까지 물린 더민주는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 대표 등장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였다. 그는 당·내외의 거센 압박에도 끝내 문 전 대표를 일단 막후로 비켜나게 한 뒤 공천 규정에서는 ‘원조 친노’로 불리는 이해찬, ‘막말’로 당내 분란 메이커였던 정경래 의원을 배제시켜 한때 신뢰를 회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스스로를 비례대표 후보 2번에 배정하는 ‘셀프 공천’ 논란으로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더욱이 친

노·윤동권이 다시 힘을 얻고 전체적으로 친문(친 문재인) 후보들이 약진함으로써 ‘도로 민주당’ 아니냐는 가까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전남 일대에서 이름도 생소한 후보들을 내세운 권 표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더민주의 광주·전라 지지율(34.8%→28.7%)은 6.1%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광주·전라에서 상승세(36.3%→38.6%)를 보인 국민의당은 광주 8석을 모두 싸출할 수도 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민주의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정권교체 심리가 결집해 반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국민의당 쪽으로 기울 전체적인 흐름을 뒤집기는 어려울 보인다. 더군다나 광주에 비해 다소 바람이 약했던 전남 지역에도 서서히 국민의당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선거를 보름 남겨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호남민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이 더 진정성을 보여 주느냐일 것이다.

탈당·재입당 반복하는 후진적 ‘철새 정치’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와 일부 지방의원의 탈당·복당이 이어지는 가 하면 후보 지지 선언이 임박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과 김 의원의 지역구였던 고흥·보성의 지방의원 13명 등은 엇그제 국민의 당 탈당을 선언했다. 경선 결과에 불복해 국민의당에서 탈당한 첫 현역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민주 복당이 점쳐진다.

조석호 광주 북구의회 부의장도 같은 날 국민의 당 탈당을 선언했으며 지난 1월 더민주를 탈당했지만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았던 김동찬 광주시의원도 이날 더민주에 복당했다. 동구의 회 김성숙 의원도 국민의당 탈당을 결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경선 결과에 불복

해 탈당한 국회의원이나 시위에 편승한 지방의원의 줄서기 행보는 불쌍 사납기 짝이 없다. 특히 국민의당을 탈당할 김승남 의원의 경우 국민의당 입당 원서의 인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탈당해 씁쓸함을 안겨 준다.

물론 이들의 이합집산이 이념의 벽을 극복하고 실용의 정치로 전환하려는 행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따져 선거 직전에 당적을 바꾸고 이리 저리 옮기는 것은 최소한의 명분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지방의원의 탈당 지지 선언은 지방선거 공천을 좌우하는 국회의원의 당선에 기여해 일찌감치 지분을 확보하려는 포석일시 분명하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철새 정치인들을 기억해 반드시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상소(上疏)는 임금에게 올린 정사에 대한 비판이나 일종의 충언이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을 견제하고 민의를 전 달하는 언로(言路)이기도 했다. 왕은 국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 상소문을 챙겨 읽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를 가르켜 밤 9시 이후인 을야(乙夜)에 읽는다고 해 ‘을람’(乙覽)이라고 했다. 상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자부상소(持斧上疏)다. 도끼를 지닌 채 상소를 한다는 뜻이니 내 말이 틀리면 목을 쳐도 좋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지부상소(持斧上疏)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지부상소를 올린 것은 고려말 충신인 우탁이었다. 우탁은 충신왕이 아버지 총렬왕의 후궁인 숙창원비 김씨를 숙비로 봉하자 상복을 입은 채 도끼를 들고 대궐로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의 후궁을 취한 것은 패륜이라며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목을 치라고 간언해 왕을 부끄럽게 했다.

조선시대에는 조현 선생이 임진왜란 발발 한해 전인 1591년 선조에게 지부상소를 올렸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신을 보내 명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빌릴 것을 요청하자 일본 사신의 목을 벨 것을 요구하며 사흘간 궁궐 밖에서

도끼를 놓고 시위를 벌였다. 지부상소는 구한말 최익현에 의해 다시 등장했다. 최익현은 1876년 강화도에서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자 도끼를 들고 광화문에 나타났다. 그는 일본과 상소문을 챙겨 읽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를 가르켜 밤 9시 이후인 을야(乙夜)에 읽는다고 해 ‘을람’(乙覽)이라고 했다. 상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자부상소(持斧上疏)다. 도끼를 지닌 채 상소를 한다는 뜻이니 내 말이 틀리면 목을 쳐도 좋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부상소를 올린 것은 고려말 충신인 우탁이었다. 우탁은 충신왕이 아버지 총렬왕의 후궁인 숙창원비 김씨를 숙비로 봉하자 상복을 입은 채 도끼를 들고 대궐로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의 후궁을 취한 것은 패륜이라며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목을 치라고 간언해 왕을 부끄럽게 했다.

조선시대에는 조현 선생이 임진왜란 발발 한해 전인 1591년 선조에게 지부상소를 올렸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신을 보내 명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빌릴 것을 요청하자 일본 사신의 목을 벨 것을 요구하며 사흘간 궁궐 밖에서

도끼를 놓고 시위를 벌였다. 지부상소는 구한말 최익현에 의해 다시 등장했다. 최익현은 1876년 강화도에서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자 도끼를 들고 광화문에 나타났다. 그는 일본과 상소문을 챙겨 읽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를 가르켜 밤 9시 이후인 을야(乙夜)에 읽는다고 해 ‘을람’(乙覽)이라고 했다. 상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자부상소(持斧上疏)다. 도끼를 지닌 채 상소를 한다는 뜻이니 내 말이 틀리면 목을 쳐도 좋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부상소를 올린 것은 고려말 충신인 우탁이었다. 우탁은 충신왕이 아버지 총렬왕의 후궁인 숙창원비 김씨를 숙비로 봉하자 상복을 입은 채 도끼를 들고 대궐로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의 후궁을 취한 것은 패륜이라며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목을 치라고 간언해 왕을 부끄럽게 했다.

조선시대에는 조현 선생이 임진왜란 발발 한해 전인 1591년 선조에게 지부상소를 올렸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신을 보내 명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빌릴 것을 요청하자 일본 사신의 목을 벨 것을 요구하며 사흘간 궁궐 밖에서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